

인간은 협력 통해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

인류 진화의 무기, 친화력

윌리엄 폰 히벨 지음, 김정아 옮김



“진화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한 것이 협력이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행은 머릿속 생각을 남과 공유하고 싶은 욕구이지 않을까 싶다. 지능 덕분에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도 한 사람 것만 놓고 보면 그리 특별하지 않다. 인간 한 명을 발가벗긴 채 거친 숲에 뚝 떨어뜨리면 곧장 산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 하지만 백 명을 발가벗긴 채 거친 숲에 뚝 떨어뜨리면 그 불운한 산짐승에게 최상위 포식자가 등장한 셈이다.”(본문 중에서)

인간의 여러 특징 가운데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감정 공유’를 꼽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화력’이다. 동물에 비해 여러 가지로 신체적 결함이 많은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은 친화력 때문이다. 인간은 그렇게 협력이라는 무기를 매개로 많은 분야의 발전을 이뤘다.

친화력을 주제로 쓴 ‘인류 진화의 무기, 친화력’은 진화와 협력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저자인 퀸즐랜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폰 히벨은 인류는 왜 서로에게 친절하도록 진화했는지 조망한다.

저자는 진화는 따뜻하고 포근한 개념이 아니라 강 조한다. 자연계에는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친화력’을 매개로 서로 협력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견해다.

저자는 심리의 변화를 주목한다. 우리 몸은 지난 600~700만년 동안 조금 바뀌었지만 심리는 큰 변화를 겪었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친화력, 공감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침팬지의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해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 <한국경제신문 제공>

다는 것이다. 마음과 두뇌의 적응이자 사회관계 기능으로, 특히 협동 능력과 직결된다.

그 예로 히벨 교수는 침팬지의 원숭이 사냥을 든다. 침팬지 무리는 원숭이를 사냥할 때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녀석들은 광경을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사냥을 지켜보지만 했던 침팬지도 나중에는 고기를 나눠먹는다. 그들은 게으름뱅이와 조력자를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네 살배기 어린아이도 누가 돕고 반동 거리는지 구별한다. 도움을 준 친구와는 사랑을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외면한다. (고쳐야 할 행동으로 보이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중요하다. “협력자와 방관자를 구별하지 않는 동물은 효과적인 팀을 구성하고 유지할 능력을 절대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사회관계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인간은 집단과 연결을 유지할 다양한 방법을 진화시켰다. 즉 구성

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인간은 당장은 이익이 없어도 머릿속 생각을 끊임없이 공유하길 원했다. 결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사람과 물체를 가리키는 행동은 다른 동물의 발달 단계에서는 목격되지 않는다. 공유에 대한 열망은 인간이 지닌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다.

저자는 이해한 내용과 경험을 나누려는 욕구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감정 반응도 남과 공유하려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책이 도달하는 결론은 간명하다. ‘친화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진화가 더디다’는 의미로 수렴된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살아남기 유리한 구조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국경제신문·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지속가능한 나이들=개인과 사회가 노년, 노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인 정희원 교수는 생물학과 노인의학이 바라보는 노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노쇠라는 생물학적 현상과 시간이 지나 노쇠라는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또 생물학적, 의학적 측면에 사회적 측면을 더해 생로병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전한다. <두리반·1만6000원>

▲때때로 캥거루=독특한 상상력과 유머 감각으로 주목받아온 임지은의 두번째 시집. 평범한 일상을 생경한 꿈의 시공간으로 뒤바꾸었던 ‘무구함과 소보로’ 이후 3년간 쓰고 다듬은 시편들을 한데 묶었다. 이번 시집에서 저자는 존재의 고유성을 벗어나 시작 자유를 도모한다. 그는 시에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도 자유로워지는 시인의 경쾌하고 재기 넘치는 도약을 보여준다. <문학동네·1만5500원>

▲이반과 이바나의 경이롭고 슬픈 운명=매년 노벨문학상 수상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마리스 폰테의 최신작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마리스 폰테 최고의 작품’이라고 극찬한 이 소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아프리카 말리를 거쳐 프랑스 본토로 향하는 과를 루프의 흑인 쌍둥이 남매 이반과 이바나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의 폐해를 보여준다. <문학동네·1만5500원>



▲피크 퍼포먼스=브래드 스탈버그와 스티브 매그니스는 그들의 실제 경험과 성과 과학 분야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적용 가능한 원리를 소개한다. 스트레스와 휴식의 균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궁극의 성공 공식이라고 주장하며 신체적 능력을 키우는 일에서부터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까지 다룬다. <부키·1만6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수달 씨, 작가가 되다=글쓰기를 좋아하는 수달 씨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책을 출간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숲털 우체국에서 일하는 수달 씨는 남몰래 글을 쓴다. 어느 날 하마 씨가 수달 씨의 원고를 알게 되고, 재밌다면서 출판사에 보내라고 권한다. 수달 씨는 꿈꾸던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윤여림 작가는 도전하는 이들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천개의바람·1만2000원>

▲열세살 은우=할머니가 손주에게 남겨주고픈 소중한 일상 이야기를 실었다. 하루하루를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은우의 일 년이 모인 책이다. 책은 월별로, 계절에 따라 일상 이야기를 풀어내며 그

속에는 은우가 심부름을 하거나 가족들과 고기잡이를 가는 일, 집 주변의 자연과 교감하는 일, 학교 이야기나 방과 후의 사건들 등 아주 소소하지만 아주 특별한 나날들이 펼쳐진다. <산지니·1만3000원>

▲해치=‘우리 민속설화’ 시리즈 4번째 권이다. 머리에 우뚝 솟은 뿔과 양 어깨에서 번개처럼 솟아오르는 갈기 모양의 불꽃 그리고 파란색 비늘로 표현한 몸이 힘있고 강렬한 해치 모습의 그림이 눈을 사로잡는다. 책은 해미야 보낸 신령한 상상 동물이자 생명을 관장하고 밝고 정의로우 세상을 바라는 수호신 해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겨운 입말체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도토리숲·1만3000원>

‘1일 1법칙’ 통해 새로운 나를 찾고 단단한 나를 만든다

오늘의 법칙

로버트 그린 지음, 노승영 옮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책 유형 중 하나가 매일 매일 한 편의 글을 읽는 구성이다. 주제도 심리학, 철학, 미술, 음악, 역사 등 다양하다. 하루 한 편의 짧은 글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고,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식이라 곁에 두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인간 본성의 법칙’,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등을 펴낸 로버트 그린의 새 책 ‘오늘의 법칙-권력, 유혹, 미스터리, 전쟁, 인간 본성에 대한 366가지 기술’은 ‘인간 심리의 대가’가 들려주는 ‘1일 1법칙’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현실이 느닷없이 뺨을 후려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냉철히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에 익숙해지거나 피곤해져 해가 갈수록 ‘오독, 헛발질, 비현실적인 결정들’이 쌓이는 상황에 낙담하고 여러동떨어져 결국 좌절하고 만다.

저자가 권력, 설득, 전략, 속담, 인간본성이라는 주제를 25년간 파고 든 결과물인 이 책은 ‘인간 본성의 법칙’, ‘전쟁의 기술’ 등 지금까지 출간된 저서 5권과 현재 집필중인 ‘승고함의 법칙’, 몇 년 간의 인터넷부와 강의, 그동안 쓴 블로그와 온라인 에세이 등에서 뽑은 내용을 엮은 책이다.

1~3월 첫 석달은 모든 외부의 목소리를 뿌리치고, 자신의 목소리, 자신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자신의 목적과 소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진로 선택의 길잡이’가 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다음 석 달은 겉모습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간파하는 훈련을 통해 감정 조종의 선수들

에게 맞서 이기는 법을 들려준다. 가을에는 진심어린 설득과 영향력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 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머릿속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법을 알아가게 된다.

마지막 석달은 나의 행동을 비롯한 모든 인간 행동의 이면에 놓인 동기를 꿰뚫어보는 내용을 구성돼 있다.

책은 달마다 제목과 주제를 정하고, 첫머리에 짧은 에세이를 실었다. 1월의 주제는 ‘인생의 과업-수달의 씨앗을 뿌려라’다. 1월 1일의 첫 글은 ‘소명을 발견하라’, 12월31일 마지막 날의 주제는 ‘궁극적 자유’다.

저자는 책을 일종의 ‘성장소설’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처럼, ‘위험하고 해로운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망상을 벗어버리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앞으로의 전투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 세상을 접된 빛 속에서 바라보면서 위안과 기쁨을 만끽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치·2만1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